제주방언의 구개음화와 이중모음의 변화

고 동 호*

〈차 례〉

1. 들어가기
2. -j계 하향이중모음
3. j-계 상승이중모음
4. 맺음말

1. 들어가기

제주방언은 다른 어느 방언보다도 일찍부터 국어학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1] 제주방언에 대한 연구는 국어학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왔다. 이처럼 제주방언이 주목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제주방언이 음운론적, 형태론적으로 보수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제주방언은 국어학자들의 관심권 밖으로 점점 멀어지고 있으며, 그나마도 관심 분야가 형태론이나 통사론 쪽에 치우쳐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한 언어의 방언들이 대체로 애초에는 한 가지 모습만을 가졌던 언어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여러 지역에서 각각 다른 모습으로 변화를 일으킨 결과(이익섭, 1984 : 12)라고 한다면, 한 언어의 방언들이 어떻게 다르며, 각 방언들은 어떤 언어 모습에서 어떤 변화 과정을 경험했는가 하는 것으로 방언 연구의 방향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방언의 분화 상태는 주로 방언 지도에 의하여 설명되어 왔으며, 방언의 역사에 대한 연구에서는 전망적 방법과 회고적 방법(허웅, 1985 : 461)이 사용되어 왔다.[2]

이 글의 목적은 제주방언에서 구개음화와 관련된 어휘들에 포함된 이중모음들이 구개음화를 전후로 어떤 음운변화를 경험했는가를 살펴 보는 데에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글에서는 제주방언에서 구개음화

*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강사

1) 제주방언에 대한 연구사는 현평효(1979) 및 현평효(1987)을 참조할 것. 특히 현평효(1987)은 1913년부터 1986년까지의 제주방언에 대한 분야별, 연도별 논저 발표 현황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2) 김주원(1990)은 '순행'의 방법과 '역행'의 방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15세기 국어를 기점으로 할 때는 두 방법이 상호 보완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15세기 이전 시기가 기점이 될 때에는 역행의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3) 문헌의 시기를 이처럼 한정시키는 이유는 대체로 중앙어에서 구개음화가 완성된 시기가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라고 추정되기 때문이다. 주4)에서 언급된 문헌 참고. 한편, 이 글에서 언급된 문헌형들은 주로 유창돈(1964)에 의거했음을 밝혀 둔다.

와 관련된 어휘들과, 중앙어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나기 이전인 15세기부터 17세기까지의 문헌에 나타나는 어휘들을 대응시키되,[3] 필요할 경우에는 18세기의 문헌에 나타나는 어휘도 대응시키기로 하겠다.

음성학이나 음운론에서 구개음화는 이차조음과 공시적인 음운의 변동, 그리고 통시적인 음운의 변화나 변천 등을 가리키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4] 이 글에서는 공시적인 음운의 변동과 통시적인 음운의 변화를 가리키기 위해 구개음화라는 용어가 사용되며, 필요할 경우에는 앞에 공시적, 또는 통시적이라는 용어를 써서 구별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다른 능동부의 움직임과 동시에 전설이 경구개쪽으로 이동하는 이차조음의 일종인 구개음화나, 훈민정음에서 치음으로 규정되었던 'ㅈ, ㅊ'이 경구개음인 /tʃ, ʃʰ/로 바뀌는 구개음화는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렇다면 이 글에서 사용되는 구개음화는 경구개음이 아닌 자음이 /i, j/ 앞에서 경구개음으로 바뀌는 동화현상의 하나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런데, 치조 비음 /n/과 설측음 /l/의 구개음화는 음운론적인 결과를 수반하지 않는 현상이므로 역시 이 글의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하겠다.

결국, 이 글에서 다루게 되는 구개음화의 자료는 종래 t-계 구개음화, k-계 구개음화, h-계 구개음화라고 일컬어져 왔던 구개음화의 자료가 되는 셈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통시적인 구개음화는 형태소 내부에서 일어난 현상을 가리키고 공시적인 구개음화는 형태소 경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가리키고 있다.[5] 따라서, 이 글에서의 통시적인 구개음화는 주로 형태소 내부에서 일어난 구개음화를 가리키게 된다.

그런데, 제주방언에서 형태소 내부의 구개음화는 대체로, 다른 방언과 그 양상이 다른 점도 나타나기는 하지만,[6] t-구개음화는 어두나 비어두 위치를 가리지 않고 일어났으며, k-구개음화와 h-구개음화는 어두 위치에서만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글의 구개음화 자료도 그러한 환경에 집중될 것이다. 한편, 일반적으로 이중모음은 과도음이 성절음의 앞에 오는가 혹은 뒤에 오는가에 따라서 상승이중모음과 하향이중모음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이 글에서도 구개음화와 관련을 맺고 있는 이중모음들을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그 변화 양상을 살펴 보기로 하겠다.

이 글에서 제시되는 제주방언의 자료는 대부분 제1차적으로 김영돈(1965)와 진성기(1976)에서 뽑고, 그것을 글쓴이의 직관에 따라 음소 표기한 것이다. 제1차적 출처로 이 문헌들을 선택한 것은 각각 민요와 민담을 채록한

4) 이차조음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의 구개음화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이명규(1990)과 홍윤표(1985)에 요약되어 있다.

5) 형태소 경계에서 일어나는 음운현상 중에는 통시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 현상도 있다는 견해도 피력되고 있다. 그 중 구개음화 현상에 대해서는 김성규(1987 : 48) 및 최명옥(1982 : 141) 참조.

6) 단편적으로 언급된 것들을 제외하면, 제주방언의 구개음화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김광웅(1985) 정도에 불과하다.

이 문헌들이 비교적 구어형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문헌들에 나타난 어형이 글쓴이의 직관과 다를 경우에는 어형의 출처를 밝히지만, 같을 경우에는 따로 밝히지 않는다.[7] 그리고, 방언형과 문헌형은 음절단위로 하이픈으로 연결하고 방언형 뒤의 괄호 안에 문헌형과 그 의미를 함께 나타내기로 한다.

2. -j계 하향이중모음

15세기 국어의 이중모음에는 상승이중모음과 하향이중모음이 있었는데, 중앙어에서 하향이중모음들은 18세기(이숭녕, 1954b) 또는 19세기(허웅, 1985 : 482-487)에 단모음으로 바뀌었다. 그렇다면, 제주방언에서 구개음화와 관련된 어휘들의 하향이중모음들은 어떤 변화를 겪었는가를 살피는 것이 이 절의 목적이다.[8]

2.1 *ʊj

15세기 중앙어의 /ʊ/는 비어두음절에서는 16세기에 일반적으로 /i/와 합류하였고(이기문, 1959), 어두음절에서는 18세기에 /a/와 합류하였다(이기문, 1977a : 121. 허웅, 1985 : 481). 이러한 변천은 하향이중모음의 성절음인 /ʊ/에도 그 영향을 미쳐서, 일반적으로 /ʊj/는 제1단계에서는 /ij/로 변화했다가 /i/로 변했으며, 제2단계에서는 /aj/와 합류했다가 /ɛ/로 바뀌었다(이숭녕, 1954b).

(1) a. ka-un-ti(ka-on-tʊj 가운데), pan-ti(군데), mɔ-ti(mʊ-tʊj 마디), pa-ti(pa-tʊj 바디), kwan-ti(kwan-tʊj 冠帶), pan-ti-nɔ-mɔl (회나물)
b. pɔ-ti-ta(가깝다)
c. hɔn-ti(hʊn-tʊj 같이), pon-ti(pon-tʊj 본디)
d. tʃɔ-k'ɔ-t'i(곁에), nɔ-t'i(진성기, 1976 : 173)(낯에), kɔ-t'i(바닷가에), pa-t'i(밭에), so-t'i(솥에), an-tʰi(안에), twi-tʰi(뒤에), pe-t'i(볕에), pe-k'jə-t'i(밖에), u-tʰi(위에)
e. (ə-ti-lo)-san-ti((어디로)-인지), (nu-ke)-sin-ti((누구)-한테)

7) 글쓴이는 태어난 이후 20년 동안 제주도에서 성장기를 보냈다. 한편, 현평효(1964b)에 따르면 제주방언에서 /ɛ/와 /e/가 독립된 음소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글쓴이의 직관은 이 두 음소를 구별하지 못한다. 따라서, 'ㅔ'나 'ㅐ'로 표기된 음소들은 모두 /e/로 전사될 것이다. 그리고, 15세기의 문헌에서 '.'로 표기되었던 음소가 현대 제주방언의 /ɔ/와 일치하는 지의 여부는 제주방언의 모음사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문헌형에서의 이 음소는 /ʊ/로 나타내기로 한다. 또한 현대 제주방언에서의 /ɔ/가 소급하는 음소는 /*ʊ/로 나타내기로 한다.

(2) mo-ki(mo-kʉj 모기), tɔŋ-ki-ta(tʉŋ-kʉj-ta 당기다)

(1)은 t-계 구개음화와 관련된 예들인데, a는 명사의 비어두 위치, b는 동사의 비어두 위치, c는 부사의 비어두 위치, d는 명사+조사의 형태소 경계, e는 조사의 제2음절 이하의 위치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어휘들이다. 그리고, (2)는 비어두 음절에서 k-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예들이다.[9]

제주방언에서 t-구개음화는 날말 경계가 개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수적으로 일어났거나 일어나고 있다(김광웅, 1985)는 점을 고려한다면, (1)의 예외들은 통시적으로 볼 때, 구개음화가 완료될 무렵까지도 구개음화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10]

(1)a 중 pan-ti-nɔ-mɔl과 (1)b는 대응되는 문헌형을 발견할 수 없었지만, 다른 예들의 경우로 미루어 제2음절 이하의 /ti/는 /*tʉj/로 재구할 수 있다. 그리고 (1)e에서 —sin-ti는 '시-'(존재)+'-ㄴ'(완료)+'딕'(장소)의 결합형이 문법적인 의미를 나타내게 된 것으로 추정되며, —san-ti는 대응되는 문헌형을 발견하거나 그 형태를 분석할 수는 없지만, —sin-ti의 예로 보아 제2음절의 /-ti/는 /*tʉj/로 재구된다.

(1)의 a, b, c, e는 단일 형태소의 제2음절 이하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주목되는데, 문헌형과 비교해 보면, 명사의 제2음절 이하에서 /t/의 뒤에 오는 /i/는 이중모음에서 유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d의 /ti/는 처격 조사 {-i}의 변이형태로서,[11] 15세기 중앙어에서 'ᄃᆞ+ᄋᆡ'로 분석할 수 있는 언어 형식이 문법형태소화한 것이다(강정희, 1988 : 64). 그렇다면, 이 처격 조사의 모음 역시 이중모음 /*ʉj(<*ʉ+*ʉj)/에서 유래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1)에서 제시된 방언형 중에는 대응되는 문헌형이 없는 어휘들도 있지만, t-구개음화를 경험하지 않은 방언형들에서 비어두음절의 /ti/는 기원적으로 /t+이중모음/이었으며, 그 이중모음은 문헌형들과의 비교를 통해 /*ʉj/였음이 추정된다. 비록, 비어두 음절에서는 k-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지만, 문헌형에서 이중모음 /ʉj/를 가지고 있는 (2)에 대

8) 물론 제주방언에서 하향이중모음들이 존재했던 시기가 있었는가를 살피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이 글에서는 일단 하향이중모음들이 존재했었다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논의를 전개하고, 하향이중모음들의 존재여부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로 미룬다.

9) 이 방언형들 중 논의의 대상이 되는 /i/는 김영돈(1965)와 진성기(1976)에서 'ㅢ'로 표기된 것도 있고, 'ㅣ'로 표기된 것도 있다. 그러나, 글쓴이의 직관에 따르면, 현대 제주방언에서는 /ɨj/라는 이중모음이 존재하지 않는다.

10) 중앙어의 구개음화의 예외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김완진(1971) 및 허웅(1985 : 494-495) 참조.

11) 강정희(1988 : 62)는 이 조사가 마지막 자음이 [t]의 닫음소리로 실현되는 명사나 통시적으로 /ㅎ/을 말음으로 가졌던 특정 명사 뒤에만 첨가된다고 하고 있다.

해서도 같은 논리로 제 2 음절의 모음 /i/가 이중모음 /*ɐj/에서 유래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a. t'e(ptɐj 垢), t^he-u-ta(t^hɐj-o-ta 載)
b. k^he-ta(k^hɐj-ta 캐다), k'e-u-ta(skɐj-o-ta 깨우다)
c. he(hɐj 日)

위의 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두 음절에서 문헌형의 /ɐj/는 제주방언의 /e/와 대응된다. 그런데, 小倉進平(1931, "濟州島方言", 靑丘學叢 5)이 당시 제주방언에서 /*ɐj/가 변한 단모음은 /e/나 /ɛ/와 구별되는 모음이라고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12] 제주방언에서는 중앙어와 마찬가지로 /*ɐj>*ɛ>e/의 변화를 경험했다기보다는, 현평효(1964a)에서처럼 /*ɐj>(>œ?)>e/의 변화를 경험했다고 해석된다.[13]

그렇다면, 제주방언에서 비어두음절의 /ɐj/는 어떤 변화 과정을 겪었는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중앙어에서는 /ɐj>ij>i/의 변화를 경험했다. 15세기 중앙어의 /ɐ/에 대응하는 제주방언의 /ɔ/는 몇몇 어휘를 제외하고는 고유어의 비어두음절에 나타나는 경우가 없고, 어두음절에만 나타난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이숭녕(1954a)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제주방언은 /ɐ/의 제 1 차 비음운화 과정과 병행되는 과정은 경험했지만,[14] 제 2 차 비음운화 과정과 병행되는 과정은 아직 경험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점에서 어두음절에서의 /*ɐj/의 변화에 대하여 중앙어와는 다른 변화 과정을 상정하는 현평효(1964a)의 해석은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비어두 음절에서도 중앙어에서와 다른 변화 과정을 상정할 수는 없다. 즉, 비어두음절에서 제주방언의 /*ɐ/가 중앙어의 /ɐ/의 변화와 병행되는 과정을 겪었다면, 제주방언의 /*ɐj/도 중앙어의 /ɐj/와 같은 과정을 겪었으며(이숭녕, 1954a), 또한 그 시기도 비교적 이른 구개음화의 발생 이전이었다고 보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일단 이중모음 /*ɐj/가 /*ij/로 변화된 후에 /*ij>i/로의 변화 과정은, 구개음화를 경험한 어휘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통시적 구개음화가 완전히 끝난 후에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12) 이기문(1977b)에서 재인용.
13) 현평효(1964a)는 문헌형의 /aj/는 /ɛ/와 대응되고, /ɐj/는 /e/와 대응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14) 중앙어에서의 이러한 변화의 원인에 대해 한영균(1990a)은 종래의 설명과는 달리 '설축'이라는 자질을 바탕으로 한 모음 간의 대립 관계가 약화된 데에서 찾고 있는데, 제주방언에 대해서도 같은 설명을 할 수 있는가는 제주방언의 모음체계와 모음조화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라야 결정될 것이다. 한편, 제 2 음절 이하에서의 ɐ>ɨ 변화의 원인에 대한 종래의 설명은 한영균(1990a)의 주 26)에 요약되어 있다.

2.2 *ɨj

중앙어에서 이중모음 /ij/는 18세기 후기에 이미 부분적인 동요를 보여 /i/로 변하기 시작했는데(곽충구, 1980 : 93), 근대 중앙어에서의 이중모음 /ij/는, 1) 15세기 국어에서 넘어 오는 기원적 이중모음, 2) 제2음절 이하에서 /ɐj>ij/ 변화의 결과로 생긴 이중모음, 3) 비어두음절 위치에서 원순성 자질의 중화된 결과 /uj>ij/ 변화의 결과로 생긴 이중모음, 4) 양순자음 아래에서 원순성 자질의 이화작용에 의한 비원순화(uj>ij)의 결과로 생긴 이중모음, 5) 통합적 과정에서 /i>ij/ 변화의 결과 형성된 이중모음 등의 다양한 기원을 가지고 있었다(최전승, 1986 : 217).[15]

문헌형들과 비교해 보면, 현대 제주방언에서 구개음화를 일으킬 위치에 있으면서도 구개음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i/가 문헌형의 /i/ 또는 /ij/와 대응되는 예들이 있다. 이 경우의 /i/는 이중모음 /*ij/에서 발달한 것이라고 추정되며, 그러한 이중모음의 기원은 위의 다섯 가지 유형 중에서 1),2),5)에 속해 있는데, 2)는 이미 2.1에서 살펴 본 바 있다.

먼저 제주방언의 /i/가 문헌형의 /ij/와 대응되어, /*ij/가 기원적인 이중모음이었다고 추정되는 예들부터 살펴 보기로 한다.

(1) a. t'i(stij 帶), t^hi(t^hij 티), t'i-u-ta(ptij-o-ta 띄우다), t'i-ta(stij-ta 띠다)
  b. ə-ti(ə-tij 어디), tʃə-ti(저기), tə-ti-ta(tə-tij-ta 더디다), ti-ti-ta∽ti-ti-ta(ti-tij-ta 디디다), pu-ti(pu-tɐj 부디) ; pul-$tʃ^h$in-mak(재를 쌓아 두는 움막)
(2) ki-pel(kij-pjəl 기별), ki-sin∽ki-un(kij-un 기운), ki-ta(kij-ta 기다), k^hi-u-ta(k^hij-u-ta 키우다)
(3) hi-ta(hij-ta 희다)

(1)a는 어두 음절에서 t-구개음화를 경험하지 않은 예들이고, (1)b는 비어두 위치에서 구개음화와 관련된 예들이다. (2)는 k-구개음화를 경험하지 않은 예들이고 (3)은 h-구개음화를 경험하지 않은 예이다. (1)b의 tʃə-ti는 대응하는 문헌형이 발견되지 않으나, 지시사+'tij'(장소)로 분석될 수 있는 어휘이다. 그리고, pu-ti의 문헌형에서 '부더'의 제2음절은, 이 문헌형이 비어두음절에서의 /ɐj/가 /ij/로 변화한 17세기에 나타난다는 점과 모음조화를 고려해 볼 때, /*tij/로 소급할 수 있을 것이다. (3)의 문헌형은 hɐj-ta가 우세하게 나타나지만, hij-ta의 반사형으로 판단된다. 어두 음절에서

15) 한영균(1990b)는 3)과 4)가 모두 전설 고모음인 /j/가 /u/를 /ɨ/와 음성적으로 가까운 위치에서 발음되도록 전설 쪽으로 끌어들임으로써 발생한 동일한 음운 변화 과정이라고 보고 있다.

는 문헌형의 /ɐj/가 현대 제주방언의 /e/와 대응된다(현평효, 1964a)는 것을 생각하면, hɐj-ta의 반사형은 hi-ta가 아니라 *he-ta로 나타나야 함을 알 수 있다.

이 예들 중 구개음화를 경험하지 않은 예들은 구개음화가 끝날 무렵까지도 문헌형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중모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통시적 구개음화가 끝난 이후에 /*ij>i/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만약, 구개음화가 끝나기 이전에 /*ij>i/ 일어나기 시작했다면, 그 변화를 경험한 어휘는 구개음화를 경험했을 것이다.

그런데, (1)b의 pul-tʃʰin-mak은 구개음화를 경험한 어휘로 생각된다. 이 어휘는 pil-tʰij+mak으로 분석되는데, pil-tʰij의 제2음절이 /*ij>i/의 단모음화가 일어나고, 이어 구개음화를 경험하여 pul-tʃʰi로 변화한 것이다.[16] 이 어휘가 구개음화를 경험했다는 것은 기원적인 /*ij/가 /i/로 변화한 것이 구개음화가 완전히 끝난 후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구개음화가 끝날 무렵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 더구나, 비어두 음절에서 구개음화를 경험했다는 것은 /*ij>i/ 변화가 비어두 음절에서 시작되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다음은 제주방언의 /i/가 문헌형의 /i/와 대응되어, /*i>*ij>i/ 변화를 경험했다고 판단되는 예들을 살펴 보겠다. 아래의 예에서 (4)a는 어두 위치에서 t-구개음화를 경험하지 않은 예이고, (4)b는 비어두 위치에서 t-구개음화를 경험하지 않은 예이며, (5)는 k-구개음화와 관련된 예이다. (5)에서 ki-ljəp-ta는 대응하는 문헌형이 발견되지 않으나, 다른 예들과 마찬가지로 제1음절이 /i∽i/의 교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제1음절의 모음은 /*i/에 소급된다고 판단된다.

(4) a. ti-li-ta(ti-li-ta 獻), ti-ti-ta∽ti-ti-ta(ti-tij-ta 디디다)
b. tu-ti-li-ta(tu-ti-li-ta 두드리다)

(5) ki-lim(ki-lim 그림), ki-li-ta(ki-li-ta 그리다), ki-lyəp-ta∽ki-ljəp-ta(먹고 싶다);
kjəŋ∽tʃəŋ(그렇게), tʃi-lə-ki∽tʃi-le-ki(김영돈, 1965 : 87, 247)(ki-ljə-ki 기러기)

위의 예들은 i-역행동화를 경험했다고 여겨진다. 일반적으로 i-역행동화는 /s, tʃ, tʃʰ/등이 개재되었을 때 그 발생이 가장 강력하게 억제되고, /t, tʰ, n, l/등이 개재되었을 때 대체로 그 발생이 억제되며, /m, p, k, kʰ, ŋ, h/등이 개재되었을 때 대체로 그 발생정도가 강력하고, 개재자음이 없을 때 그 발생정도가 가장 강력하다(정인승, 1937)고 알려져 있다. 월성어의 경우 /l/

16) 어떤 발달 과정을 거쳤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pul-lan-ti∽pul-lan-tʃi(pan-toj 개똥벌레)도 제주방언에 나타난다.

이 중간에 개재된 동사들이 후설비원순모음이 전설모음으로 바뀌는 i-역행동화를 경험했다고 보고된 바 있고(최명옥, 1982 : 76),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에서는 /t, l/이 중간에 개재되는 어휘들도 i-역행동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된 바 있는데(최전승, 1986 : 151-153), 위에 제시된 어휘들을 보면 제주방언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또한 i-역행동화는 /ʁ/의 비음운화와 이중모음 /aj, əj, oj/의 단모음화가 이루어진 직후에 발생했기 때문에 대응되는 전설모음이 생성되지 않았던 /i, u/는 i-역행동화를 경험하지 않는다(김완진, 1963)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다. 다시 말해서, 후설모음의 i-역행동화는 대응하는 전설모음이 존재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제주방언이 이러한 전제에 순응했다면, 위의 예들은 구개음화나 /*ij>i/ 단모음화 이후에 i-역행동화를 경험했을 것이다. 그리고, (4)a의 ti-ti-ta나 (5)의 ki-ljəp-ta는 i-역행동화를 경험하지 않은 잔존형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최전승(1986 : 149-169)은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이 반영된 문헌에 하나의 어휘에 대한 표기가 'ㅡ∽ㅣ'와 'ㅜ∽ㅟ'가 동시에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하고, i-역행동화 과정은 제1차적으로 V가 V_i로 바뀌는 과정인데, 이 중모음들의 단모음화가 일어남으로써, i-역행동화는 후설모음이 대응하는 전설모음으로 바뀌는 과정이 되었다는 가설을 제기했다. 다시 말해서, i-역행동화 현상은 대응하는 전설모음의 존재를 전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i-역행동화를 제1단계 i-역행동화와 제2단계 i-역행동화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17]

(6) kwe-ki(ko-ki 고기), weŋ-ki-ta(olm-ki-ta 옮기다)
(7) kwi-kjəŋ(ku-kjəŋ 구경), swiŋ-ke∽suŋ-ke(hjuŋ-kjəj 흉계), swi-jəm(수염)

(6)과 (7)은 각각 /*o/, /*u/였던 제1음절의 모음이 i-역행동화를 경험했다고 여겨지는 예들이다. 그렇다면, 위의 예들은 어떤 과정의 i-역행동화를 경험했는가? 김완진(1963)과 최전승(1986)의 근본적인 차이는 i-역행동화가 대응하는 전설모음 계열을 전제하는가 전제하지 않는가이다. 현평효(1971)에 따르면, 현대 제주방언에서 장년층의 단모음 체계에도 /y/나 /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y/, /*ɸ/가 존재했던 흔적도 현재로서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18] 그렇다면 위의 예들의 제1음절은 최전승(1986)의 가설을 따라서 i-역행동화인 /*o>*oj/, /*u>*uj/ 변화 과정과 상승이중

17) 이렇게 구분한다면, 제1단계 i-역행동화는 대응되는 전설모음들을 전제하지 않으며, 제2단계 i-역행동화는 그러한 모음들을 전제하게 된다.
18) 정승철(1988 : 68)은 김완진(1963)의 전제에 입각하여 전설원순모음 계열을 재구하고 있다.

모음화인 /*oj>we/, /*uj>we/ 변화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다는 것이 합리적인 설명으로 여겨진다. (7)의 swiŋ-ke와 suŋ-ke의 교체는 *hjuŋ-kjəj가 구개음화와 3.1에서 언급될 과도음 탈락을 경험한 다음에 i-역행동화를 경험했는가, 혹은 경험하지 않았는가의 차이로 설명될 것이다. 한편, 이러한 상승이중모음화의 원인으로는 /*ʁj, *aj, *əj/의 단모음화로 인한 하향이중모음 체계의 동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o/, /*u/의 i-역행동화가 제1차적 과정을 겪었다면, /*i/의 i-역행동화도 같은 과정을 경험했다고 생각된다. 즉, (4), (5)의 어휘들은 구개음화가 끝난 후, /*i>*ij/의 제1차 i-역행동화를 경험한 다음 /*ij>i/의 단모음화를 경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세 변화 과정은 시간적으로 불연속적인 위치에 놓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서로 조금씩 중복되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변화의 발생은 구개음화, i-역행동화, 단모음화의 순서였는데, 각 변화가 시간적인 폭을 가지고 있어서 구개음화가 완전히 끝나기 이전에 이미 /*ij(<*i)>i/로의 단모음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아야만 (5)의 tʃəŋ과 tʃi-lə-ki∽tʃi-le-ki가 구개음화를 경험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구개음화를 경험한 예가 어두음절에 나타난다는 것은 /*i/에 소급되는 /*ij/의 단모음화가 어두음절에서 시작되었음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2.3 기타 하향이중모음

15세기 중앙어에는 /ʁj, aj, əj, oj, uj, ij/의 하향이중모음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ʁj, ij/에 대응하는 /*aj, *ij/의 변화에 대해서는 2.1과 2.2에서 살펴본 바 있다. 나머지 하향이중모음 중 구개음화와 관련된 어휘에 반영되는 이중모음은 /*aj, *oj, *uj/이다.

(1) a. tʃe-il∽tʃil(tjəj-il 제일)
b. tʃe-u(kjəj-ju 겨우)
c. se-ta∽si-ta∽sje-ta(hjej-ta 세다), se-a-li-ta(hjej-a-li-ta 헤아리다)

위의 예는 문헌형의 /jəj/와 제주방언의 /e/, /je/, 또는 /i/가 대응되는 예들이다. 이 어휘들의 제1음절은 /*jəj>je>e>i/의 음운변화 과정을 경험했다고 여겨진다. /*jəj>*jə>e>i/의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과정을 상정하면 (1)c의 se-∽si-∽sje의 교체를 설명하기가 불가능해진다. 즉, /*jəj>je>e>i/의 변화 과정을 겪었다고 한다면, /*əj/의 단모음화 이후의 과정이 제주방언에서 교체형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방언에서는 구개음화가 일어난 후, /*əj/의 단모음화와 과도음탈락이 일어나고, /e>i/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된다.

(2) a. t'i(ptuj 茅)
b. pə-tʰi-ta(*pə-tʰuj-ta 버티다)

(2)는 문헌형의 /uj/가 제주방언의 /i/와 대응하는 예들이다. pə-tʰi-ta의 경우 문헌에는 pa-toj-ta로 나타나지만, 모음조화를 고려해 볼 때, *pə-tʰi-ta의 반사형일 것으로 판단된다. /uj/와 /i/의 대응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위의 예들이 구개음화가 일어난 후에 하향이중모음의 상승이중모음화를 경험하고 과도음 /w/의 탈락을 경험했다고 보아야 한다.[19]

(3) kam-tʰe∽kam-tʰi(kam-tʰo 감투), san-ti(san-to-mi〈譯語類解〉 旱稻米), jun-ti(in-to〈譯語類解 補〉 인두), tʃak-t'wi(tʃak-to 작두), tʃaŋ-ti(—to 장도)

(3)은 문헌형의 /o/가 제주방언의 /i/ 또는 /wi/와 대응하는 예들이다. 물론, 문헌형들이 이 글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부분의 문헌형들과는 달리, 17세기 말 또는 18세기의 문헌에 나타난다는 점이 불만이기는 하지만, 17세기 이전의 어형도 이러한 문헌에 나타나는 /o/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숭녕(1957)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제주방언에서 명사의 뒤에 /i/를 붙이는 것은 제주방언의 조어법의 두드러진 특질이다. 위의 예들도 /o/로 끝나는 명사의 뒤에 /i/가 붙어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위의 방언형들의 형성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중앙어에서처럼(이기문, 1972 : 203) 비어두음절에서의 /*o>*u/ 변화가 일어남에 따라 /*oj>*uj/ 변화가 일어났고, /*uj>*wi/의 상승 이중모음화가 일어난 다음 과도음 /*w/가 탈락했다는 설명 방법이다. 둘째의 설명 방법은 /*əj/의 단모음화가 일어난 후 /*oj>*we/의 상승이중모음화가 일어나고, /*e>i/의 변화에 따라 /*we>*wi/의 변화가 일어나고 과도음 /*w/가 탈락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제주방언에서는 o-tʃom(오줌)이나 so-kom(소금) 등 /*o>*u/의 변화를 경험하지 않은 어휘들이 꽤 존재하며, kam-tʰi는 kam-tʰe와 교체되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둘째의 과정을 택하고자 한다. 즉, 구개음화가 일어나고 나서 /*əj>e/의 단모음화가 일어나고 /*e>i/의 변화가 일어난 후,[20] 과도음 /*w/가 탈락해서 (3)의 예들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3)의 tʃak-twi는 이러한 변화 과정 중 과도음의 탈락을 경험하지 않은 예로 생각된다.

19) 상승이중모음화에 대해서는 2.2 참조.
20) 다음의 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제주방언에서는 이러한 /*e>i/의 변화가 꽤 생산적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sit(셋), hi-ta(헤엄치다), si-saŋ(세상), toŋ-ni(동네) 등.

3. j-계 상승이중모음

제주방언의 상승이중모음은 j-계와 w-계의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정승철(1988 : 32-42)에 따르면 제주방언에서 j-계 이중모음은 형태소 내부에서 제 2 음절 이하의 /n, l/을 제외하고는 어떤 자음 뒤에서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관찰이 sje-ta∽si-ta∽se-ta (세다)의 교체로 미루어 전적으로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이 장에서 다루는 상승이중모음의 변화가 경구개음 뒤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은 충분히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의의 전개를 위해서 이 글에서는 경구개음 뒤에서 일어난 j-계 상승이중모음의 변화만 다루고 다른 자음 뒤에서의 변화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과도음 /*j/가 구개음화를 일으킨 후,[21] 경구개음 뒤의 이중모음이 겪었던 변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과도음 /*j/가 탈락하여 jV 연쇄에서 V로 바뀌는 경우이고, 둘째는 이중모음이 단모음으로 축약되어 jV_1 연쇄에서 V_2로 바뀌는 경우이다.

3.1 jV>V

경구개음이 아닌 자음들이 구개음화에 의해 경구개음으로 바뀌면, 인접한 /j/와 경구개음은 조음위치가 비슷해지기 때문에, /j/는 경구개음에 흡수되어서 탈락된다(허웅, 1985 : 536).[22] 아래의 예에서 (1), (2), (3)은 각각 t-구개음화, k-구개음화, h-구개음화의 예들인데, (1)a, (2)a, (3)a를 살펴보면, 제주방언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난 후 경구개음 뒤의 과도음 /*j/는 탈락했음을 알 수 있다.

(1) a. tʃə-siŋ(tjə-sʉjŋ 저승), tʃoh-ta(tjoh-ta 좋다), pu-tʃʰə(pu-tʰjə 부처), tʃaŋ-tʃəŋ(tʃan-tjəŋ 장정)
    b. tʃəŋ-sim∽tʃiŋ-sim(tjəm-sim 점심)
(2) a. tʃə-sil(kjə-zil 겨울), tʃa-ut(갸웃)
    b. tʃɔ-lil(kjə-lil 겨를), tʃɔn-ti-ta(kjə-tʉj-ta 견디다)

---

21) 중앙어의 t-구개음화는 /i/ 앞에서보다 /j/ 앞에서 더 일찍 발생했다. 송민(1986 : 65) 참조.

22) 허웅(1964)는 중앙어의 구개음화에 대해 /t>ts/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고 [ts>tʃ]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보고 있는 반면에, 이기문(1977a : 66)은 [ts>tʃ]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고 /t>tʃ/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후자의 견해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만, 양자의 차이는 음운변화가 점진적인가, 비약적인가에 대한 관점의 차이이다. 음운변화의 과정에 대해서는 김방한(1988 : 112-123) 참조. 그러나, /t>ts/의 변화가 구개음화가 아니라는 이기문(1977a)의 비판은 적절한 비판이었다. 한편, 강신항(1983)과 김주필(1985 : 9-22)은 15세기에 이미 [tʃ]가 존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a. səŋ(hjəŋ 형), so-tʃe(hjo— 효자), suŋ-si(hjuŋ-sɯ 흉사)
b. swiŋ-ke(hjuŋ-kjəj 흉계)

(1)b의 교체 현상은 구개음화 이후에 과도음 탈락과 3.2에서 살피게 될 /*jə>*e(>i)/ 변화가 수의적으로 일어났음을 말해 준다. 그리고, (2)b에서 tʃɔn-ti-ta의 제1음절의 모음은 모음조화를 고려하여 이기문(1977b)에서 /*jɯ/를 재구된 바 있다.[23] 같은 논리로 tʃɔ-lil에 대해서도 *kjɯ-lɯl 정도로 재구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2)b도 역시 구개음화 이후에 /*j/ 탈락을 경험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3)b는 제1음절이 구개음화가 일어난 후에 과도음 탈락이 일어나고(/*ju>*u/), 2.2에서 살핀 것처럼 i-역행동화가 일어난 다음(/*u>*uj/),[24] 상승이중모음화가 일어나서(/*uj>wi/) 형성된 어휘로 판단된다.

3.2 jə>e

이중모음 /*jə/가 /e/(>/i/)로 변하는 현상은 순음 뒤에서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에서 밝힌 것처럼, 이 글이 구개음화와 관련된 음운변화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jə/로 소급되는 /e/ 또는 /i/가 경구개음 뒤에 나타나는 경우만 살펴 보기로 한다.

(1) a. tʃiŋ-sim(tjəm-sim 점심)
b. tʃep-s'i(tjəp-si 접시)
(2) a. tʃi-tʃip(kjə-tʃip 계집)
b. tʃet-ka-tʃi(kjət— 곁가지)
(3) se(hjə 혀)

위의 예에서 (1), (2), (3)은 각각 t-구개음화, k-구개음화, h-구개음화를 경험한 예들이며, (1)a, (2)a는 제주방언의 /i/가 문헌형의 /jə/와 대응되는 예들이고, (1)b, (2)b, (3)은 제주방언의 /e/가 문헌형의 /jə/와 대응되는 예들이다.

자음 뒤에서의 /jə>e/의 축약은 제주방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중남부 방언이 경험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단모음화의 과정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어 왔는데, 지금까지 제시된 견해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견해는 /jə/가 음운의 전위를 경험하여 /əj/가 되고, 이 /əj/가 단모음화하여 /e/로 바뀌었다는 것으로 이광호(1978), 곽충구

23) 김주원(1990)은 경북방언 내에 '짜리-'와 '쩌리'(短)가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jɯ/는 다시 /*ja/에 소급된다고 보고 있다.

24) 이 글에서의 방법과는 달리, 최전승(1986 : 188-194)는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에서의 /ju>uj/ 변화에 대해 과도음 탈락이 먼저 일어난 것이 아니라 과도음 첨가가 일어난 다음(/ju>juj/)에 과도음 탈락이 일어났다(/juj>uj/)고 보고 있다.

(1982), 김진우(1968) 등이 이 범주에 속한다. 둘째 견해는 /jə/가 뒤에 /i/가 첨가되어 삼중모음인 /jəj/로 바뀌었다가 /əj/의 단모음화로 /je/로 바뀐 후, 다시 과도음 /j/가 탈락하여 /e/로 바뀌었다는 것으로, 이숭녕(1940), 최전승(1986 : 194-212)이 이 범주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셋째 견해는 /jə>je>e/의 변화 과정을 가정하고, /jə>je/ 변화는 "(/əj/의) 단모음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je]에 가깝게 실현되던, 여'의 '어'가 새로이 형성된 단모음[음운으로서의] e(에)에 partager된 사실을 보여 주는 것"(김완진, 1963)이라고 설명하는 방법이다.

음운의 전위가 본질적으로 비약적인 음운변화이기는 하지만(King, 1969 : 111), 첫째 견해는 통시적으로 그 근거가 나타나지 않는다(김완진, 1963. 최전승 1986 : 196)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둘째 견해의 문제점은 중앙어의 경우 15세기에는 형태소 내부에 삼중모음이 나타나는 어휘가 극히 제한되어 있었던 반면에, 근대 시기에 들어와서는 15세기에 단모음이나 이중모음으로 표기되었던 어휘들이 이중모음이나 삼중모음으로 표기되는 경우가 많다는 데에서 발견할 수 있다.[25] 다시 말해서, 근대 문헌에 나타나는 표기형들이 문자 그대로 이중모음 또는 삼중모음이었겠느냐 하는 소박한 의문이 제기된다. 물론 근대어의 중모음 체계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위의 의문에 대한 답이 긍정적이라면, 형태소 내부에서의 삼중모음의 음운사적 기능부담량은 적다가 많아졌다가 없어졌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둘째 견해의 또 다른 문제점은 음운변화의 원인을 설명하기가 어렵다는데에 있다. 즉, 첫 단계에서 /i/가 첨가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 상태로서는 (1)b, (2)b, (3)b의 예들은 구개음화가 일어난 후 /*jə>*je>e/의 변화 과정을 경험했고, (1)a, (2)a는 다시 /*e>i/의 변화 과정을 경험했다고 설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26]

4. 맺 음 말

지금까지 제주방언에서 구개음화와 관련된 어휘들이 겪었던 이중모음의 변화에 대해 살펴 보았다. 이 글의 의의를 요약하고, 이 글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면서 이 글을 맺기로 한다.

방언이 한 언어의 하위체계라고 한다면, 한 언어의 방언들은 서로 공통적인 발달을 하기도 하고 독자적인 발달을 하기도 한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25) 예를 들어, 비록 /ju>uj/ 변화의 증거이기는 하지만, 15세기에는 대개 형태소 경계에서만 나타났던(허웅, 1985 : 487) '뉘'의 표기가 형태소 안에 나타나는 '원쉬' 같은 예들도 최전승(1986 : 190)에 제시되어 있다.

26) 기원적인 /*jəj/의 변화에 대해서는 2.3 참조. 그리고 /*jə>*je/ 변화의 원인은 당시의 모음체계에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문제는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한다.

수 있다. 따라서 현대국어의 연구가 제방언에 대한 연구의 총화가 되어야 한다고(최명옥, 1982 : 3) 할 때 국어사 연구도 각 방언사에 대한 연구의 총화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문헌자료의 빈약성으로 인하여 방언사 연구는 커다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역사언어학에서는 문헌자료의 빈약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내적 재구의 방법과 비교 방법에 의한 재구의 방법이 사용되어 왔다.

이 글은, 제주방언의 역사를 연구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비교 방법을 사용하여, 통시적 구개음화와 관련된 어휘들의 이중모음들이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가를 살펴 보았다. 비교의 대상으로 삼았던 어휘들은 주로 중앙어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나기 이전인 15세기부터 17세기까지의 문헌에 나타나는 어휘들이었다.[27] 만약 이 글에서 사용된 방법과 그 결과가 타당하다면, 더 많은 통시적 현상을 정밀하게 검토함으로써 제주방언의 통시태에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언어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한 언어의 공시태는 통시적 변화의 결과이다. 언어변화는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동안 지속된다(Wang, 1969)는 관점에서 보면, 공시태는 발생 기점이 다른 여러 통시적 과정들을 동시에,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경험하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은데, 제주방언의 구개음화의 예외에 대한 예외들이 이러한 사실을 증명해 준다.

한편,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는 거의 항상 또다른 문제를 낳게 되는데, 이 글도 예외는 아니다. 이처럼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 속에 발전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생각된다. 이런 관점에서 이 글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방언을 대상으로 하는 언어 연구의 생명은 이론이나 해석보다는 자료 자체에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바이다. 보다 더 다양하고 풍부한 자료의 수집이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이를 통해서 음운현상에 대한 정밀한 관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음운론이 음운체계와 음운현상에 관심을 갖는다고 할 때, 체계와 유리된 현상이나 현상과 유리된 체계는 존재할 수 없다. 이 둘은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또 그러한 관점의 연구를 통해서만 음운체계와 음운현상에 대한 올바른 파악이 가능하다.

셋째, 방언의 분화는 공통어의 상이한 발달의 결과이며, 각 방언은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 방언형들의 비교에 있어서 특정 방언의 방언형과의 비교를 지양해서 보다 더 다양한 방언형들과의 비교가 이루어져야 한다.

27) 이 방법에 대해서 곽충구(1982)의 주4)에 나타난 고민과 변명은 이 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참 고 문 헌

강신항(1983), "치음과 한글 표기", 국어학 12, 국어학회.

강정희(1988), 제주방언연구, 한남대학교 출판부.

곽충구(1980), "18세기 국어의 음운론적 연구", 국어연구 43, 국어연구회.

_____(1982), "아산지역어의 이중모음 변화와 이중모음화", 방언 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김광웅(1985), "제주지역어의 구개음화에 대한 일연구", 제주대논문집 20.

김방한(1988), 역사-비교언어학, 민음사.

김성규(1987), "어휘소 설정과 음운현상", 국어연구 77, 국어연구회.

김영돈(1965), 제주도민요연구(상), 일조각.

김완진(1963), "국어 모음체계의 신고찰", 진단학보 24, 진단학회.

_____(1971), "음운현상과 형태론적 제약", 학술원 논문집(인문, 사회) 10, 대한민국 학술원

김주원(1990), "국어사 연구의 방향 정립을 위한 제언", 민족문화논총 11,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김주필(1985), "구개음화에 대한 통시론적 연구", 국어연구 68, 국어연구회.

송 민(1986), 전기근대국어음운론연구, 탑출판사.

유창돈(1964), 이조어사전, 연세대학교 출판부.

이광호(1978), "경남방언의 이중모음에 대하여", 국어학 6, 국어학회.

이기문(1959/1978), 16세기 국어의 연구, 탑출판사.

_____(1972), 개정국어사개설, 민중서관.

_____(1977a), 국어음운사연구, 탑출판사.

_____(1977b), "제주도 방언의 'ㅇ'에 관련된 몇 문제", 이숭녕선생고희기념 국어국문학논총, 탑출판사.

이명규(1990), "구개음화",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이숭녕(1940), "「.」음고", 진단학보 12, 진단학회.

_____(1954a), 국어음운론연구 제1집 「.」음고, 을유문화사.

_____(1954b), "15세기의 모음체계와 이중모음의 Kontraktion적 발달에 대하여, 동방학지 1, 연세대학교 동방학연구소.

———(1957/1978), 제주도 방언의 형태론적 연구, 탑출판사.

이익섭(1984), 방언학, 민음사.

정승철(1988), "제주도방언의 모음체계와 그에 관련된 음운현상", 국어연구 84, 국어연구회.

정인승(1937), ""i"의 역행동화문제, 그 원리와 처리 방법", 한글 41.

진성기(1976), 남국의 민담, 형설출판사.

최명옥(1982), 월성 지역어의 음운론, 영남대학교 출판부.

최전승(1986),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의 음운현상과 그 역사성, 한신문화사.

한영균(1990a), "모음조화의 붕괴와 '.'의 제1단계 변화", 국어학 20, 국어학회.

_____(1990b), "모음체계의 재정립과 '.'의 제 2 단계 변화", 애산학보 10, 애산학회.

허 웅(1964), "치음고", 국어국문학 27, 국어국문학회.

_____(1985), 국어음운학, 샘문화사.

현평효(1964a), "제주도 방언 'ㅐ'[ɛ]음에 대하여", 국문학보 2, 제주대국어국문회.

_____(1964b), "제주도 방언의 단모음 설정", 한국언어문학 2, 한국언어문학회.

_____(1971), "제주도방언의 음운", 교육제주 17, 제주도교육연구원.

_____(1979), "제주도방언연구에 대한 검토", 방언 1, 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_____(1987), "제주도방언연구의 현황과 과제", 제주도연구 4, 제주도연구회.

홍윤표(1985), "구개음화에 대한 역사적 연구", 진단학보 60, 진단학회.

Kim, C.-W.(1968), The Vowel System of Korean, *Language* 44.

King, R.D.(1969), *Historical Linguistics and Generative Grammar*,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Wang, W.S-Y(1969), Cometing Changes as a Cause of Residue, *Language* 45.

〈**Abstract**〉

The Palatalization and the Change of Diphthongs in the Cheju Dialect

Dong-ho K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rvey the changes of diphthongs before and after the diachronic palatalization in the Cheju dialect. To achieve the purpose, this study compares the mordern Cheju dialect forms with those of the central dialect in the 15th~17th century. As a result, this study concludes as follows.

(1) the changes falling diphthongs
*ʁj>*ɨj>i
*ɨ>*ɨj>i
*ɨj>i
*əj>*e>i
*oj>*uj>wi>i
*uj>*wi>i
(2) the changes of rising diphthongs
*jV>V
*jə>*je>e>i

The order and cause of the changes, however, cannot be assumed by means of the method in this study. These will be made up for by the comparison with other dialect forms and the organic consideratien of the phonological system and processes in the Cheju dialect.